

신화적 상상력의 시대적 구현

—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중심으로 —

강 종 임*

— <目次> —

I. 들어가는 말	III. 견우들과 직녀들: 과거의 상상
II. 견우성과 직녀성: 상상의 근원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山海經》에 수록된 기상천외한 존재들, 저팔계에게 희롱당하는 月宮 嫦娥, 女媧補天에서 남겨진 돌덩이 하나로 《紅樓夢》이 시작되는 것 등 상상력의 소산인 이면 문화¹⁾의 역동성에 무엇보다 신화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신화는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학계의 인식도 있다. 예를 들면 고대 왕조로서 신화의 체계를 갖춘 殷 왕조의 신화는 국가가 멸망함에 따라 전승되지 못했고, 그 뒤를 이은 周 왕조는 이미 역사 시대로 들어서서 ‘天’ 사상을 국가이념으로 하였으며, 신화에는 합리적인 해석이 가해져서 經典化되었다는 견해²⁾를 들 수 있다. 또한 시오노야 아쓰시(鹽谷濶)는 중국 신화의 형태가 집대성되지 못한 원인으로 황하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1) 이면 문화는 중국 역사상 절대적인 통치 이념으로써 주변 문화 및 기층 사교에 억압적 영향을 끼쳐온 유교 문화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 2) 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종교학대사전》 [중국신화],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8, 1216쪽.

유역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진 중국인들의 실제적 성향, 그리고 怪力亂神을 배척하고 현실적 삶의 이상을 제시하고자 했던 孔子의 영향 등을 들었다.³⁾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중국의 신화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이 흩어져 사라졌으며, 그나마 단편적인 내용 역시 고대의 여러 문헌 속에 분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야기의 형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을 인식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중국 신화의 이러한 특징은 그리스나 인도의 신화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전해지는 것과는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완전한 이야기의 형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중국의 신화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 사실 중국 신화를 담고 있는 최초의 기록은 여러 문헌 속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이야기의 구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 예컨대 《中國上古神話》에는 반고, 복희, 여와, 서왕모 등을 비롯한 90여 개 신화들의 초기 문헌 기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각각의 신화가 모두 예외 없이 여러 문헌에 기재된 산발적인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⁴⁾ 여러 문헌 속에 산재해 있는 단편적인 문장 혹은 단어들만 개별적으로 본다면 그저 이 기록이 어떤 신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완성된 이야기를 알아채기란 쉽지 않다.

그 단편들은 우리에게 마치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퍼즐 조각과 같은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여러 문헌에 분산되어 있는 신화의 단편이야말로 인간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매력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주변의 여러 관념이나 습속을 흡수하여 한층 더 구성력을 갖춘 이야기로 완성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신화의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견우직녀’의 이야

3) 루션 저, 조관희 역주, 《중국소설사》, 서울: 소명출판, 2004, 69쪽에서 재인용.

4) 劉城淮 著, 《中國上古神話》,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8, 참조.

기가 형성되던 초기의 형태와 다양한 변형을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중국의 신화인 견우직녀의 이야기는 孟薑女傳說, 梁祝傳說, 白蛇傳傳說과 더불어 중국 4대 민간 전설로도 손꼽힌다. 일 년에 단 한 번 칠석에만 만날 수 있다는 견우직녀 전설은 인구에 회자되면서 중국의 여러 지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승되었다. 현재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이 이야기는 천문학적, 역사적, 종교적, 민속학적,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고찰되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의 견우직녀 이야기의 전승 과정 및 그 유형 연구와 함께 한국의 견우직녀 이야기와의 비교 연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乞巧’ 등 칠월 칠석 관련 민속 문화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다.⁵⁾

여느 중국 신화의 초기 문헌 기록과 마찬가지로 ‘견우직녀’의 이야기도 자잘한 단편으로 존재한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등에 의해 제창된 상호텍스트성 이론에 따르면 한 텍스트는 여러 텍스트적 요소들의 통합과 변형의 작업을 통해 형성된다. 상호텍스트적 신화 체계라는 개념은 우리가 중국 신화를 하나의 텍스트로서 읽는다고 상정할 때 중국 신화를 단일한 총체가 아닌 다양한 주변 신화나 관념의 통합과 변형의 체계로 파악한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문헌에 산재해 있는 견우직녀의 신화는 전형적인 상호텍스트적 신화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문헌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견우직녀의 이야기는 원

5) 趙達夫, 〈先周歷史與“牛郎織女”傳說的起源〉(《隴東學院學報》, 2008)·邱綺, 〈傳統七夕節演變歷程與現代轉型〉(中南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趙穎, 〈牛郎織女神話傳說的流變及其現實意義〉(《西安電子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潘雪玲, 〈中韓牛郎織女故事比較研究〉(《黑河學刊》, 2015)·王榮, 〈中華優秀傳統文化在課堂教學中的應用——以西和乞巧文化與仇池文化爲例〉(《智力》, 2023) 등의 연구는 견우직녀 전설을 그 기원과 전승, 파생, 민속, 문화, 비교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의 견우직녀 전설 연구는 양충열, 〈견우직녀 설화의 생성과 사회적 배경 고찰〉(《세계문화비교연구》, 2012)·신원기, 〈韓·中 ‘牽牛織女說話’의 比較 研究〉(《어문학교육》, 2005)·박명, 〈한·중 견우직녀형 설화의 전승 및 활용 연구〉(전남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등으로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6)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서울: 민음사, 1995, 18쪽 참조.

래 형태 그대로 멈춰있지 않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내려왔다. 이것은 바로 신화가 어떤 특정한 작자의 지배하에 놓인 저작(Work)의 개념이 아닌 열린 해석의 장인 원전(Text)⁷⁾임을 매우 적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는 여느 신화가 그렇듯이 중국 민족의 생활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다시 각색되면서 그 시공간의 사람들의 삶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살아남았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견우와 직녀라는 명칭은 농경사회에서의 ‘男耕女織’이라는 사회적 분업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견우와 직녀에 대한 상상은 하늘의 별자리와의 연관성도 갖고 있다. 즉 별자리의 모습을 통해 풍요를 기원하던 星辰 신앙이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후 효의 가치가 최고의 선으로 여겨지던 시기에는 효행에 대한 보상으로 직녀와의 만남이 묘사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유와 개성이 넘치는 시기에 쓰인 이야기에서는 예속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솔직하고 과감한 직녀의 형상이 묘사된다. 따라서 견우직녀의 이야기는 다시 쓰인 시기마다 각 시대의 기대 지평에 맞춰 변형됐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견우직녀의 이야기 속에 담긴 신화의 초기형태로서 星辰 신앙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견우직녀 이야기의 변형들 가운데 유의미한 담론을 지닌 〈董永〉과 〈郭翰〉의 이야기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시대적 담론은 견우직녀의 이야기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텍스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7) 정재서, 같은 책, 18쪽.

II. 견우성과 직녀성: 상상의 근원

《詩經·小雅·大東》은 견우직녀를 언급한 최초의 문헌 기록이다. 여기에서 견우와 직녀는 별자리로 묘사되고 있다.

천상에 은하수가 흐르니, 반짝이며 빛을 발하는구나.
 직녀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곱 차례 오가는구나.
 일곱 차례나 오가도록 한 필의 천도 짜내지 못하네.
 반짝이는 저 견우도 수레를 끌지 못한다네.
 동쪽에는 啟明星, 서쪽에는 長庚星.
 하늘에는 天畢이 늘어서 있네.
 남쪽에 [키 모양의] 箕星이 있으나 곡식을 까부를 수 없네.
 북쪽에 [국자 모양의] 斗星이 있으나 술과 즙을 따지 못하네.
 남쪽에 [키 모양의] 기성이 있어서 키 양끝[舌]으로 받아 거두는 듯하네.
 북쪽에 [국자 모양의] 두성이 있어서 서쪽으로 국자 자루로 걸려 있네.⁸⁾

시의 본문 속에는 견우와 직녀뿐 아니라 사방의 별들도 같이 묘사하고 있다. 별들은 하나같이 의인화된 채 묘사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함축적이어서 이야기보다는 별들의 천문학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쉬지 않고 하루에도 일곱 차례나 오가는구나’라는 구절은 직녀성이 卯時에서 酉時까지 하루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무려 7차례나 자리를 옮기는 현상을 묘사한 것이다.⁹⁾

또한 시에 묘사된 天畢[쌍둥이자리], 箕宿[사수자리], 北斗[큰곰자리] 및 啟明星, 즉 長庚星의 형상은 가을 밤하늘을 관측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8) 維天有漢, 監亦有光. 跂彼織女, 終日七襄. 雖則七襄, 不成報章. 腕彼牽牛, 不以服箱. 東有啟明, 西有長庚. 有捋天畢, 載施之行. 維南有箕, 不可以簸揚. 維北有斗, 不可以挹酒漿. 維南有箕, 載翕其舌. 維北有斗, 西柄之揭. (李學勤 主編, 《毛詩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786~790쪽.)

9) 程俊英, 《詩經注析》, 北京: 中華書局, 1991, 643쪽.

표현한 것이다.¹⁰⁾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천체 운행 규율에 대해 상당히 세밀히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를 지은 작자 역시 어느 정도 천문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¹⁾

별들의 모양을 형상화하면서 그 상태를 주관적으로 진단하는 일은 과학적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전통 시기 중국의 민중들에게는 상당히 즐거운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밤하늘의 별들은 제멋대로 흩뿌려져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문명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을 모아서 하나의 별자리로 만들어 놓았다. 지구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놓여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들을 묶어서 별자리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보다 철저한 상상력의 소산인 셈이다.¹²⁾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의 인용한 시에 담긴 내용 역시 단지 별자리의 운행에 대한 관찰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작자 나름의 별들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직녀성은 하루의 반이나 되는 시간을 7차례나 이동해 가며 열심히 길쌈질을 하지만 목표한 분량의 천을 짜내지 못하고 있다. 견우성도 힘차게 소를 끌지 못한다. 심지어 동서남북 사방에 널려 있는 별들도 저마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별들이 밝게 빛나는 때도 있으려면 하필 그렇게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견우직녀 이야기의 자초지종이 시의 어느 구절에도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별들의 모습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남녀의 안타까움과 실의가 투영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밤하늘의 별자리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흩뿌려진 공간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이야기를 꾸며내는 상상의 공간이 된

10) 전관수, 〈견우직녀설화에 대한 고대천문학적 시론〉,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3호, 2009, 261쪽 참조.

11) 鄒宏偉, 〈牛郎織女傳說三種文本分析〉, 《長江師範學院學報》第32卷 第5期, 2009, 34쪽.

12) 전관수, 앞의 논문, 256쪽 참조.

것이다.

하늘의 별이 묘사된 것은 비단 문학 작품만이 아니다. 漢代 畫像石에도 견우성[牛宿]의 별자리 모양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견우성[牛宿]은 북방의 현무 七宿 가운데 두 번째 별자리로 모두 여섯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宋史·天文志·二十八舍》에는 “견우성은 여섯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늘로 이어지는 교량이다. 제물로 바치는 희생과 관련된 일을 주관한다.”¹³⁾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견우성의 여섯 별 가운데 河鼓라고 불리는 세 개의 별에 신화적 색채를 부여하여 해석했다. 즉 아들과 딸을 안고 직녀를 쫓아간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와 연관되어 상서롭지 못한 별자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¹⁴⁾

이상의 여러 문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견우 직녀 이야기가 형성되기 이전인 중국 고대 때부터 별자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다음으로 그에 대한 인식은 그 형상에 따라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인 길쌈이나 농사의 길흉을 판단하는 星占의 하나로 소비되고 있었다.



[漢代 畫像石 견우성]¹⁵⁾

13) 牛宿六星，天之關梁，主犧牲事。〔元〕脫脫 等撰，《宋史》，北京：中華書局，1985，1014쪽.)

14) 潘超，〈漢代畫像石牛郎織女題材的圖像形式研究〉，《中國民族博覽》第10期，2017，195쪽.

15) 南陽市 漢畫館 소장 화상석(〈中國美術報〉，2021.02.15. 기사 참조. <http://www.zhuokearts.com/html/20210215/249115.html>)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하늘의 현상과 별들의 징후는 국가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길흉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별자리로서의 견우성과 직녀성이 보여주는 징후 역시 길쌈과 농경이 주요 생산 수단이었던 중국의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견우성과 직녀성에 대한 星辰 신앙적 묘사는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형주 사람들은 견우성을 河鼓라고 부른다. 나루터의 일을 주관한다. 직녀는 과일 재배하는 일을 주관한다.¹⁶⁾

이 기록을 통해 별자리로서의 견우와 직녀가 이미 고대 농경 사회의 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사회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기록을 보면 견우성과 직녀성을 통해 풍작과 길쌈 솜씨를 기원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직녀는 일명 東橋라고도 한다. …… 직녀성은 10월 새벽에 동쪽 하늘에 나타난다. 붉은빛으로 밝게 빛나면 여자들의 길쌈이 잘 된다. 밝게 빛나지 않으면 길쌈이 순조롭지 않다.¹⁷⁾

[牛宿 여섯 별] 가운데 하나로 소를 주관한다. 그것이 이동하면 소에 재앙이 많이 일어난다. 그것이 밝고 성대하게 빛나면 인의의 도가 크게 일어나고, 곡곡이 지면 곡물의 가격이 오른다. …… 그 빛이 밝지 않으면 일상이 어그러지고 오곡의 수확도 부족하다. 가느다란 빛으로 보이면 소값이 떨어진다. 위아래로 움직이면 소가 많이 죽고, 그 가운데 작은 별이 보이지 않으면 소에게 전염병이 많다.¹⁸⁾

16) 牽牛星, 荊州人呼他爲河鼓, 他主司關口, 渡口. 織女主司瓜果.([宋]李昉 等撰, 《太平御覽·風土記》, 北京: 中華書局, 1985, 149쪽.)

17) 織女一名東橋. …… 織女十月晨見東方, 赤精明, 女工善, 不精明, 女工惡.([唐]瞿曇悉達 撰, 《開元占經·織女占十二》, 《文淵閣四庫全書》本)

18) [牛六星]中一星主牛, 移動則牛多殃, 明大則王道昌, 其星曲則糴貴. …… 不明失

별이 빛나는 정도나 별빛이 방사되는 모양에 따라 길쌈이나 농사에 관련된 일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또 연관시키고 있다. 직녀성의 밝기가 길쌈질의 순조로움과 그렇지 않음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앞서 인용한 시에서 주변의 별들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직녀성의 존재를 실감하게 한다. 그만큼 길쌈이 중요한 노동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견우성의 변화는 더욱 세밀하게 구분되어 현실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즉 소와 곡물의 가격 변동, 수확의 많고 적음, 소의 전염병의 유무 등이 별의 변화와 연관 지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 소의 가치가 매우 중요했고, 또한 소를 다루는 견우야말로 생산력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견우들과 직녀들: 파격의 상상

밤하늘의 별자리로서 견우성과 직녀성에 대한 인식은 이후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해져 그 결과 한 쌍의 부부인 견우와 직녀가 탄생하고, 그들 사이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로 전개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詩經》에 수록된 초기 문헌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형성됐고 이후 《古詩十九首·迢迢牽牛星》, 《風俗通》, 《述異記》, 《荊楚歲時記》, 《天中記》 등 여러 문헌 속에서 구체화하였다. 그중에서도 《天中記》에 묘사된 내용은 우리에게 친숙한 가장 전형적인 견우직녀 이야기이다.

은하수 동쪽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천제의 자식이다. 베틀로 피륙을 짜느라 매년 힘들게 일했다. 그녀는 짠 비단으로 운무처럼 가벼운 옷을 만들었다. 너무 수고롭게 일을 하느라 다른 낙이 없었고, 용모를 꾸밀 시간도 없었다. 천제는 그녀가 혼자 생활하는 것을 가엾이 여겨 은하수 서

常, 穀不登, 細則牛殘, 中星移上下, 牛多死, 小星亡, 則牛多疫. ([宋] 鄭樵 撰, 《通志·天文略第一·北方》, 《文淵閣四庫全書》本.)

쪽에 사는 견우에게 시집보냈다. 이때부터 직녀는 천을 짜는 일은 내버려 둔 채 환락에 빠져 동쪽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천제가 격노하여 동쪽으로 돌아오게 하고 견우와는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도록 했다.¹⁹⁾

이것이 바로 견우직녀 이야기의 기본 틀이다. 이 기본 틀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천 년이 넘는 역사적 시간의 간극을 초월해 존재하는 원형의 힘을 볼 수 있다. 이천 년이라는 시간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 사이에 다채로운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그 변화들 속에서도 기본 틀이 여전히 근간이 되고 있다.

1. 〈董永〉

이야기의 원형, 즉 결혼과 이별 및 재회로 구성된 견우직녀 이야기와 비교해 상당한 변형이 일어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搜神記》에 실린 董永 고사를 들 수 있다.

漢의 董永은 千乘 사람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전답을 힘써 갈았으며, 작은 수레에 아버지를 싣고 모시며 다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사 지낼 수가 없어서 이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상을 치렀다. 주인이 그의 어둡을 알고 그에게 돈 일만 냥을 주어 돌려보냈다.

동영은 삼 년 상을 다 마치고 주인에게 돌아가 그에 대해 자신이 갚아야 할 일을 다하고자 하였다.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말하길, “그대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여 같이 가게 되었다.

주인이 동영에게 말했다. “이 돈은 자네에게 주겠네.”

19) 大河之東，有美女麗人，乃天帝之子，機杼女工，年年勞役，織成雲霧絹練之衣。辛苦殊無歡悅，容貌不暇整理，天帝憐其獨處，嫁與河西牽牛爲妻，自此即廢織任之功，貪歡不歸。帝怒，責歸河東，一年一度相會。(明) 陳耀文 撰，《天中記·星》，《文淵閣四庫全書》本.)

동영이 말했다. “은혜를 입어 부친의 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부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동영이 말했다. “천을 짤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꼭 그래야했다면 자네의 부인이 비단 백 필만 짜 주면 된다네.”

이에 동영의 아내가 주인집을 위해 비단을 짠데 열흘 만에 다 마쳤다.

아내가 문을 나서며 동영에게 말하길 “저는 하늘의 직녀입니다. 당신의 효성이 지극하여 천제께서 저에게 당신의 빛을 갚도록 돕게 하셨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²⁰⁾

동영의 이야기는 《수신기》 외에도 《태평광기》 권59, 《태평어람》 권411, 《蒙求》 권136, 《법원주립》 권62 등의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다.²¹⁾ 이 이야기에서 견우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직녀가 인간 세상의 동영과 배필이 된 것으로 보아 견우의 존재를 동영이 대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천상의 견우와는 별개로 직녀가 하계에 내려와 동영을 만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동영과 직녀의 이야기를 낫설게 하는 부분이다.

천제는 동영의 효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직녀를 보내 동영

20) 漢董永，千乘人，少偏孤，與父居，肆力田畝，鹿車載自隨，父亡，無以葬，乃自賣爲奴，以供喪事，主人知其賢，與錢一萬，遣之，永其行三年喪畢，欲還主人，供其奴職，道逢一婦人曰：愿爲子妻，遂與之俱，主人謂永曰：以錢與君矣，永曰：蒙君之惠，父喪收藏，永雖小人，必欲服勤致力，以報厚德，主曰：婦人何能，永曰：能織，主曰：必爾者，但令君婦爲我織縑百匹，于是永妻爲主人家織，十日而畢，女出門，謂永曰：我，天之織女也，緣君至孝，天帝令我助君償債耳，語畢，凌空而去，不知所在。〔晉〕干寶撰，馬銀琴譯注，《搜神記》，北京：中華書局，2012，26~27쪽.)

21) 이 외에도 《董永變文》을 비롯하여 明代의 淸平山堂話本 《董永遇仙記》와 《織錦記》，清代의 《賣身記》 등으로 재창작되었다.(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天津：南開大學出版社，2005，308쪽 참조.)

과 만나게 한다. 동영의 빛을 갠기 위해 주어진 분량의 천을 모두 짜고 난 뒤에 직녀는 동영에게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한다. “천제께서 저에게 당신의 빛을 갠도록 돕게 하셨을 뿐(天帝令我助君償債耳)”이라는 직녀의 말은 감정적인 요소는 배제된 채 그저 천제의 명령을 수행한 것임을 강조하는 듯하다. 말을 마친 후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凌空而去, 不知所在)”라는 부분에서도 동영에게 전혀 미련을 두지 않는 신으로서의 직녀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애절한 사랑이 아닌 ‘효’의 가치이다.

동영은 東漢 시기 실존했던 인물로서 훗날 光武帝 建武 2년(26년) 고창[千乘] 지역의 제후에까지 오른다. 그의 효행은 상고시대부터 송대까지 24명의 효행을 기록한 《二十四孝》에 “賣身葬父”라는 편목으로 실려 있다. 고대 중국의 민간에서 빛을 내어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노역으로 빛을 탕감하던 관례는 선진 시기에 이미 존재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례는 특히 漢代를 거쳐 위진남북조 시기까지도 성행하였다.

이러한 변형은 한대 동중서가 주창한 三綱五常이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채택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효는 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일 뿐 아니라, 관리를 선발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했다. 漢代에 처음 시행되었던 ‘孝廉’은 매년 각 지역의 효자와 청렴한 자를 추천받아 관리에 등용했던 제도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후 효야말로 정치와 도덕 등 사회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선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풍조가 조성되었다. <동영>은 이후 칠선녀 모티프와도 결합되는 등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전설로 널리 퍼져 중국인의 정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²²⁾

그런데 <동영>에서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직녀의 존재이다. 그녀는 또 다른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주목할 만하다.

22) 황매희 편집부, 《중국문화유산총람》, 용인: 도서출판 황매희, 2010, 60쪽.

동영의 아내가 된 직녀는 동영이 갇아야 하는 빛을 대신해 100필의 비단을 짠다.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그것을 단 열흘 만에 해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漢代 建安 연간의 <孔雀東南飛>에 기재된 “닭이 울 때부터 베틀에 올라갔으며 밤마다 쉴 틈이 없었지요. 사흘에 다섯 필이나 짜도 어른은 늦다고 트집을 잡으셨어요.(鷄鳴入機織, 夜夜不得息, 三日斷五疋, 大人故嫌遲)”²³⁾라는 시구 내용에 근거하면, 직녀의 능력은 현실을 초월해 가히 신의 능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직조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농사와 달리 열심히 하기 나름에 따라 계절과 상관없이 부를 늘려갈 수 있는 것이 직조였다. 따라서 여성의 부지런함은 집안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다. 위의 <孔雀東南飛>에서 인용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직녀가 직조를 관장하는 여신으로서 고대 중국의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시기 중국에서 양잠과 길쌈이 주된 일이었던 여인들은 ‘乞巧會’를 열어 직녀에게 ‘지혜와 솜씨[智巧]’를 빌었다. <荊楚歲時記>에는 “칠석에 집안의 여인들이 색실을 자아 七空針에 꿴고 금과 은, 아름다운 옥석[鑰石]으로 바늘을 만들기도 하여 뜰에 과일을 진설하고 솜씨를 내려줄 것을 기도한다.”²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열에는 솜씨를 비는 여인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칠월 칠석날에 견우직녀에게 소원을 비는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것을 보면 당시 여인네들의 의식 속에는 직녀가 그만큼 간절함을 이루게 해 줄 수 있는 신이었음은 분명한 듯하다.

23) [梁] 서릉 저, 권혁석 역주, <옥대신영1>, 서울: 소명출판, 2006, 155~156쪽.

24) 七月七日, 爲牽牛織女聚會之夜, …… 是夕, 人家婦女結彩樓, 穿七孔針, 或以金銀玉石爲針, 陳瓜果於庭中以乞巧. ([清] 康熙四十九年聖祖, <御定淵鑑類函·歲時部八·七月七日>, <文淵閣四庫全書>本.)

직녀성에 대한 종교적 신앙에서부터 직조의 능력을 기원하는 ‘乞巧’의 풍속, 그리고 다양하게 변형된 이야기들에 이르기까지 고대 중국 여인네들에게 있어 직녀는 더없이 중요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동영〉의 이야기에서 주축은 물론 동영이다. 그러나 동영의 꿈을 이루어 준 존재는 다름이 아닌 직녀였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동영〉의 이야기를 지어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열흘 만에 비단 100필을 짤 수 있는 능력을 바랐을 것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동영〉이라는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효의 가치를 선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郭翰〉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는 唐代에 이르러 다시 한 번 파격적으로 각색된다. 〈郭翰〉은 唐代 張荐(744~804)이 편찬한 《靈怪集》 속에 수록된 고사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다. 郭翰 역시 唐代 감찰어사를 비롯한 여러 관직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지만 그의 생애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²⁵⁾ 오히려 《태평광기》에 수록된 직녀와의 만남을 다룬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더 유명하다.

나는 천상의 직녀입니다. 오랫동안 상대할 지아비가 없이 좋은 시절 다 가버리고 우울함이 가슴에 가득해 상제께서 인간 세상을 유람해 보라고 명을 내리셨지요. 그대의 맑고 고아한 풍모를 흠모하여 그대에게 몸을 맡기려 합니다. 〈중략〉

곽한이 문밖까지 배웅하자 그녀는 구름을 타고 떠났다. 그 후 그녀는 밤

25) 郭翰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狄仁傑(630~700)과 같은 시기에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측천무후 시기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禦史郭翰巡察隴右, 所至多所按劾. 及入寧州境內, 耆老歌刺史德美者盈路, …… 翰薦名於朝, 徵爲冬官侍郎, 充江南巡撫使. 吳楚之俗多淫祠, 仁傑奏毀一千七百所. [後晉] 劉昫 撰, 《舊唐書·列傳第三十九》, 《文淵閣四庫全書》本.)

마다 왔으며 정은 더욱 절절해졌다.

곽한이 그녀를 놀리며 말했다. “견우 낭군은 어디에 있소? 어찌 감히 혼자 나다니는 것이오?”

그녀가 대답했다. “음양의 변화가 그와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인가요? 하물며 그와 나 사이에는 은하수가 가로 놓여 있으니 이 일을 알 수 없을 것이고 설령 이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중략>

그 후 칠월 칠석이 다가올 무렵 그녀는 갑자기 더 이상 오지 않더니 며칠 밤이 지나서야 왔다.

곽한이 그녀에게 물었다. “견우와 만나서 즐거웠소?”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천상의 일을 어찌 인간 세상의 일에 비하겠습니까? 마침 운명이 이러하여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대는 질투하지 마십시오.” <중략>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다. 그 해에 태사(太史)가 직녀성에 빛이 없다고 상주했다. 곽한은 그녀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며 모든 세상의 여색에 대해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았다.²⁶⁾

곽한은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직녀를 마주하게 된다. 이 이야기에든 견우는 그저 천상의 신으로 존재할 뿐 이야기 전면에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일 년에 한 번 칠석에만 만난다는 모티프는 여전히 유효하다. 견우를 그리워하는 생활이 무료한 직녀는 상제의 허락을 받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곽한과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 천상에 있는 견우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직녀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는 부정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직녀라는 인

26) 《太平廣記·女仙》：吾天上織女也，久無主對，而佳期阻曠，幽態盈懷。上帝賜命遊人間，仰慕清風，願託神契。……欲曉辭去，面粉如故。為試拭之，乃本質也。翰送出戶，凌雲而去。自後夜夜皆來，情好轉切。翰戲之曰：牽郎何在。那敢獨行。對曰：陰陽變化，關渠何事。且河漢隔絕，無可復知。縱復知之，不足為慮。因撫翰心前曰：世人不明瞻矚耳。……後將至七夕，忽不復來，經數夕方至。翰問曰：相見樂乎。笑而對曰：天上那比人間，正以感運當爾，非有他故也，君無相忌。……自此而絕。是年，太史奏織女星無光。翰思不已，凡人間麗色，不復措意。〔송] 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3》, 서울: 학교방, 2001, 407~413쪽 참조)

물과 비교해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직녀는 상대할 지아비가 없어 우울하다고 말하는데도 주저함이 없다. 광한이 건우의 존재를 언급하자 은하수 저편에 있어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를 것이라고 하며, 심지어 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한다. 남녀평등 의식과 성적 개방성이 그 어느 때보다 보편화된 현재에서도 직녀의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대담한 설정에도 일 년에 한번 칠월 칠석의 재회는 여전히 중요하다. 직녀는 칠석에 건우를 만나러 천상으로 훌쩍 떠나 며칠이나 보내다가 돌아온다.

이 이야기 속의 직녀는 중국 전통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던 정절 관념 등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 대범한 모습이다. 우리가 별자리를 보며 상상하던 직녀의 모습, 그리고 동영의 효성에 보상해 주기 위해 천제의 명령에 따라 천을 직조하던 직녀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아무리 개방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唐代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격의 정도가 지나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광한〉 속의 직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唐代의 시대적 특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직녀의 과감하고 대담한 변신이 작가의 의도적인 창작에서 비롯되었다면 우선 唐代에 시행되었던 과거제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추천으로만 인재를 뽑던 漢代와 달리 唐代에는 추천과 함께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進士科에 급제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문인이 개인의 재주를 각 방향으로 드러내고 진사에 급제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行卷’이 급부상한다.

이른바 ‘행권’은 進士科 시험에 앞서서 과거 응시자들이 자신의 수준을 과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을 골라 사회에서 명망과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들이 자신을 추천해주거나 혹은 문단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²⁷⁾

唐代 과거제의 이러한 영향은 唐 傳奇가 극성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27) 마오샤오윈, 김준연·허주연 옮김, 《당나라 뒷골목을 읊다》, 파주: 글항아리, 2018, 37~41쪽 참조.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과거 응시자들이 작성한 行卷은 그 수량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작품 속에서 눈에 띄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글재주뿐 아니라 내용도 특별해야 했다는 것이다.

〈곽한〉도 이러한 시류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작품의 내용이 뛰어나지 않으면 다른 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이 뛰어나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각을 나타낼 방법은 일반 사람들이 한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오히려 당나라 사람들의 성격과 맞아떨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발표된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여 다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다. 〈곽한〉이야말로 오랫동안 변함없던 견우직녀 이야기에 대한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곽한〉에서 정절은 직녀의 신념이 아니며, 그녀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욕망이었다.²⁸⁾

문학 작품은 상상의 산물이다. 그러나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는 기발함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곽한〉은 唐代라는 사회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唐代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도록 발산되던 시기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특히 직녀의 性에 대한 자유분방한 태도나 사고방식은 정절 관념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唐代의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唐 왕조의 뿌리는 원래 한족과 유목민족인 선비족의 혼혈로서 유교적 가치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²⁹⁾ 물론 여성에 대한 정절 관념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唐代 궁중에서 “잘 생기고 멋진 남자를 찾는[招面首]”³⁰⁾ 현상이 공공연하게 성행했다는 것이다. ‘面首’는 궁중 여

28) 마오샤오원, 김준연·하주연 옮김, 같은 책, 41~42쪽 참조.

29) 鄭順婷, 〈論《郭翰》對‘牛郎織女’神話的解構〉, 《滄州師範專科學校學報》第22卷 第1期, 2006, 32쪽.

인들의 성애 대상, 즉 男寵이다. 唐代의 유일한 여황제인 측천무후에게도 수많은 남총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韋后, 官婉容 등 中宗의 비빈, 태종의 합포공주, 고종의 태평공주, 중종의 안락공주 등 황제의 딸들도 남총을 두고 있었다.

〈곽한〉을 만들어 낸 작가 장천은 史官을 수년간 맡았던 인물로 황제, 비빈, 공주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들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곽한〉속 직녀의 형상은 당시 궁중의 이러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곽한과 직녀의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서사 작품들 가운데 매우 흔히 등장하는 人神 연애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직녀를 본능에 더할 나위 없이 솔직하고 대담한 모습의 신으로 그려내었다. 그것은 예속에 구애 받지 않았던 당시의 개방적인 사회 풍조를 여실히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작품의 파격은 곧 그 시대의 파격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놉시스 〈곽한〉

위에서 살펴본 곽한의 파격적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 진행했던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다시 한 번 각색된다.³²⁾ 시놉시스 〈곽한〉의

30) 물론 이런 현상들이 唐代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대 유학자 紀曉嵐의 《閱微草堂筆記》에 따르면 고대 중국인의 男色은 한족의 시조였던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역사가 유구하다. 面首는 용모와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미남이라는 의미이자 남창의 대명사로 동성애의 상대가 된 자도 적지 않다. 진시황의 친모 趙姬, 趙飛燕 자매 등 역시 男寵을 둔 대표적인 일화로 늘 거론되는 인물이다.(김문학, 《오천년 중국사 속의 사랑과 욕망》, 서울: 지식여행, 2011, 56~58쪽 참조.)

31) 鄭順婷, 같은 논문, 32쪽 참조.

32)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십여 년(2002~2010)간 추진해 온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가운데 “2003년 중국 환타지 문학의 원형을 찾아서”에서는 《태평광기》의 이야기 100편 및 그 시놉시스(synopsis)를 제작해 수록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곽한〉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녀는 천상의 의복을 주관하는 신으로 상제의 딸이다. 그녀는 일 년에 단 하루만 견우를 만나는 운명이 가혹하게만 느껴진다. 이런 직녀의 마음 탓인지 그녀가 만든 옷을 입은 신들이 두통에 시달린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 세상에까지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직녀가 정신을 놓는 사이 바늘 5개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다. 바늘에 꽂힌 인간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다.

상제의 노여움을 산 직녀는 바늘을 찾으러 인간세상으로 향한다. 그런데 마지막 바늘이 꽂힌 사람은 바로 곽한이라는 청년이었다.

직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때 직녀를 주시하는 까치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오작교의 까치였다. 곽한과 직녀의 만남이 순탄치 않다.³³⁾

이 이야기는 몇 가지 부분에서 흥미로운 구성을 갖추고 있다.

- ① 외로운 직녀가 만든 옷이 신들의 두통을 일으킨다.
- ② 직녀가 실수로 놓친 5개의 바늘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다.
- ③ 떨어진 바늘에 꽂힌 인간은 이상한 병에 걸린다.
- ④ 직녀는 다섯 사람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줘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
- ⑤ 곽한은 직녀와 사랑을 시작한다.
- ⑥ 오작교를 놓았던 까치로 인해 직녀와 곽한은 이별한다.
- ⑦ 천상으로 간 직녀는 상심하여 종종 바늘에 손이 찢린다.
- ⑧ 직녀성이 간혹 붉게 빛나는 것은 직녀가 바늘에 찢린 흔적이다.

인간 세상으로 외출, 사랑과 이별 등의 중요 골자는 《태평광기》의 〈곽한〉과 같다. 하지만 5개의 바늘, 다섯 사람의 소원, 까치의 방해, 붉은 직녀성 등은 시놉시스를 완성한 현대인의 감각과 잘 어우러져 흥미로운 요소가 된다. 특히 직녀의 바늘에 찢린 다섯 사람은 각각 아이를 원하는

33) 문화원형백과, 중국 환타지 100편 〈중국 환타지 문학의 원류를 찾아서—곽한〉, 네이버 지식백과, 2023.11.06. 검색.

부부, 백 년의 수명을 원하는 노인, 기름진 땅을 원하는 농부, 사랑하는 연인을 원하는 기생, 그리고 직녀를 사랑하고픈 궻한이다. 그들의 소원은 천상에서 내려온 직녀로 인해 실현된다. 이 다섯 사람의 소원은 마치 고대 중국에서 칠월 칠석에 ‘소원을 빌었던(乞願)’ 것을 연상하게 한다. 《風土記》에는 사람들이 “부유함을 빌거나 장수를 빌거나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빌거나 오직 하나만 빌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빌어서는 안 된다.”³⁴⁾라고 하였다.

시놉시스 <궻한>에는 효성스러운 동영에게 도움을 주는 직녀의 모습도, 자신의 외로움에 궻한과 사랑에 빠지는 직녀의 모습도 겹쳐 있다. 이것을 보면 신화나 전설 또는 고대의 작품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원천 소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시놉시스대로 활용된 예는 아니지만, 2013년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도 견우와 직녀의 모티프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2016년에 초연된 K-Culture Show ‘별의 전설: 견우직녀성’도 고구려 덕흥리 고분 벽화에서 발견된 견우와 직녀 벽화를 모티프로 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많은 변형된 이야기들이 견우와 직녀의 신화라는 원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라도 원형 텍스트와 어떤 식으로든 부합해야 하며, 텍스트 자체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³⁵⁾

IV. 나오는 말

농경문화에 깊은 뿌리를 둔 견우직녀 이야기는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과

34) 乞富, 乞壽, 無子乞子, 唯得乞一, 不得兼求.([宋] 李昉 等撰, 《太平御覽·風土記》, 北京: 中華書局, 1985, 149쪽.)

35) 이진경, 《과격의 고전》, 과주: 글항아리, 2016, 21쪽.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사의 생명력이 길 수밖에 없다. 별자리에서 시작한 견우직녀 신화는 천상의 신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의 만남과 이별이 존재한다는 점 등 공통된 화소를 지니고 있다. 견우직녀 이야기는 바로 이 공통의 화소들로 인해 어쩌면 중국 신화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재현되고, 가장 다채롭게 각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공통적 화소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있지만 다시 쓰인 각각의 이야기들은 다시 쓰인 당시의 시대상을 투영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쓰인 이야기들 속에서 다양하게 변형된 채 그려진 직녀의 모습, 등장 인물들의 행동들에는 오랜 세월 여러 문헌 속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배어있다는 점에서 견우직녀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익숙할 수 없는 견우직녀 이야기가 만일 원형 속에 머물러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고정된 채 전승되었다면 그저 고전이 라는 틀 속에 묶인 화석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담아내고, 다양한 군상을 투영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견우직녀 이야기는 때로는 감동적으로, 때로는 파격적으로 다시 직조되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사회적 현상, 간절한 소망 등이 더해진 채 마치 스스로 자가 증식하는 세포처럼 수많은 견우와 직녀가 만들어진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직조하여 덧붙이는 것은 기존 이야기의 진부함을 떨어낼 수 있는 신선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시쓰기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진다. 다시 말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익숙한 이야기에다 시대에 맞게 각색되고 변형되어 덧붙여진 이야기는 친근감과 참신함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신화적 상상력은 현실을 구현해 내는 좋은 소재로 작동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당나라의

36) 유강하, <틈새를 메우는 문학적 상상력 ‘리텔링’>, 《중국어문학논집》 제63호, 2010, 447쪽.

문인들이 선택했던 것 역시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 이야기는 무한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문화를 창조해 낼 수도 있으며,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는 힘이 있다.

< 참고문헌 >

- 干寶 撰, 馬銀琴 譯注, 《搜神記》, 北京: 中華書局, 2012.
- 康熙四十九年聖祖, 《御定淵鑑類函》, 《文淵閣四庫全書》本.
- 瞿曇悉達 撰, 《開元占經》, 《文淵閣四庫全書》本.
- 劉昫 撰, 《舊唐書》, 《文淵閣四庫全書》本.
- 劉城淮 著, 《中國上古神話》,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8.
-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5.
- 李昉 等撰, 《太平御覽》, 北京: 中華書局, 1985.
- 李學勤 主編, 《毛詩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程俊英, 《詩經注析》, 北京: 中華書局, 1991.
- 鄭樵 撰, 《通志》, 《文淵閣四庫全書》本.
- 陳耀文 撰, 《天中記·星》, 《文淵閣四庫全書》本.
- 脫脫 等撰,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85.
- 김문학, 《오천년 중국사 속의 사랑과 욕망》, 서울: 지식여행, 2011.
- 루원, 조관희 역주, 《중국소설사》, 서울: 소명출판, 2004.
- 마오샤오원, 김준연·하주연 옮김, 《당나라 뒷골목을 읊다》, 파주: 글항아리, 2018.
- 서릉, 권혁석 역주, 《옥대신영1》, 서울: 소명출판, 2006.
- 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3》, 서울: 학고방, 2001.
- 이진경, 《파격의 고전》, 파주: 글항아리, 2016.

- 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종교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8.
-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서울: 민음사, 1995.
- 황매희 편집부, 《중국문화유산총람》, 용인, 도서출판 황매희, 2010.
- 유강하, 〈틈새를 메우는 문학적 상상력 ‘리텔링’〉, 《중국어문학논집》 제 63호, 2010.
- 전관수, 〈견우직녀설화에 대한 고대천문학적 시론〉, 《정신문화연구》 제 32권 제3호, 2009.
- 潘超, 〈漢代畫像石牛郎織女題材的圖像形式研究〉, 《中國民族博覽》 第10期, 2017.
- 鄭順婷, 〈論《郭翰》對‘牛郎織女’神話的解構〉, 《滄州師範專科學校學報》 第22卷, 第1期, 2006.
- 鄒宏偉, 〈牛郎織女傳說三種文本分析〉, 《長江師範學院學報》 第32卷 第5期, 2009.
- 南陽市 漢畫館藏 화상식, 〈中國美術報〉, 2021.02.15. 검색.
<http://www.zhuokearts.com/html/20210215/249115.html>
- 문화원형백과, 중국 환타지 100편 〈중국 환타지 문학의 원류를 찾아서—
곽한〉, 네이버 지식백과, 2023.11.06. 검색.

< Abstract >

The legend of the Cowherd and Weaver Girl, which can only be met once a year, has been widely handed down not only in various regions of China but also in Asia, including Korea, Japan, the Philippines, and Vietnam.

Like the early literature records of Chinese mythology, the story of Cowherd and Weaver Girl exists as a small short story. Focusing on

thes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ythology, this paper analyzes the early forms and various variations in the formation of the story of Cowherd and Weaver Girl.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d the faith of the stars as an early form of myth contained in the story of Cowherd and Weaver Girl. Next, the stories of Dong Yong(董永) and Guo Han(郭翰), which have meaningful discourse among the variations of the story of Cowherd and Weaver Girl, were analyzed. Through this, the discourse of the times shown by these stories demonstrated sufficient value as an open text in which the story of Cowherd and Weaver Girl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Key Words : 중국신화(Chinese mythology), 牽牛織女(Cowherd and Weaver Girl), 董永(Dong Yong), 郭翰(Guo Han), 시놉시스 郭翰 (synopsis Guo Han)